연예뉴스 HOT 3

이정현, 세살 연하 전문의와 4월 결혼

이정현

연기자 이정현(39)이 세 살 연하 전문의와 4월 결혼한다. 4일 소속사인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는 이정현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4월7일 서울 모처에서 가족 및 지인들을 초대해 비공개 예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신랑은 세 살 연하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제해왔다. 이에 앞서 이정현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정현은 1996년 영화 '꽃잎'으로 데뷔, 가수로도 활동해왔다.

국민권익위, 승리 메신저 내용 확보

승리

그룹 빅뱅의 승리가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근거로 제시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 매체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앞서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에 관한 이야기를 투자업체 대표 등과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승리는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키·엔·정진운 4일 나란히 입대

샤이니 키 빅스 엔 정진운

그룹 샤이니 키(김기범·28)와 빅스 엔(차학연·29), 가수 정진운(28)이 4일 나란히 입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앞서 육군 군악대에 합격한 세 사람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입대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짧게 깎은 머리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7일 전역할 예정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tvN '왕이 된 남자' 성공적인 피날레의 힘

4일 막을 내린 드라마 '왕이 된 남자'의 완성도를 높인 배우 여진구와 이세영, 김상경.(왼쪽부터) 탄탄한 극본과 연출, 이들 배우의 활약까지 더해져 '리메이크의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사진제공 | tvN

극본·연기·연출의 완벽한 앙상블

김선덕·신하은 작가의 해석
여진구·이세영 탁월한 연기
베테랑 연기자와 신구 조화도
김희원 PD 섬세한 연출 한몫

tvN 월화드라마 '왕이 된 남자'가 연기, 극본, 연출의 완벽한 앙상블로 4일 막을 내렸다. 2012년 12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해 신선함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출연진과 제작진의 열정이 성공을 이끌어냈다. 작은 소품까지 시청자의 시선을 붙들 만큼 모든 요소로 균형을 이루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성공의 중심에는 김선덕·신하은 작가와 이들의 대본을 완벽히 이해하고 캐릭터를 구축한 여진구와 이세영을 비롯한 연기자들, 또 이들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면에 담아낸 김희원 PD가 있다.

아역으로 활동할 때부터 '떡잎'으로 주목받은 주인공 여진구와 이세영은 이번 드라마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과시했다. 왕과 광대의 1인 2역을 맡은 여진구는 두 캐릭터의 서로 다른 감정을 자유자재로 드러냈다. 광기에 사로잡혀 폭주하지만 안위에 불안해하면서 동시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여린 모습을 표현했다. 이세영은 중전의 위엄을 단아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그려내며 여성미까지 돋보였다.

이들의 활약은 신구 조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오랜 경험으로 탄탄한 내공을 자랑하는 김상경, 권해효, 장광, 이무생 등이 이야기의 묵직함과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여진구와 이세영을 지원했다. 어린 연기자들의 패기와 선배들의 노련미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

촬영장에서 뿜어내는 연기자들의 치열함과 생생함을 화면에 옮겨놓은 김희원 PD도 성공의 한 축을 맡았다. 지난해 MBC 드라마 '돈꽃'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김 PD는 '왕이 된 남자'로 이를 다시 증명했다. 다양한 카메라 구도로 역동적인 연출력을 선보이며 사극답지 않은 속도감 있는 전개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인물의 감정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도 잃지 않았다.

대본을 집필한 김선덕 작가는 영리한 재해석으로 원작의 기본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냈다. 원작과 달리 여진구와 이세영의 멜로를 강조해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을 극대화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한국영화 흥행 상승세, 캡틴 마블에 달렸다

개봉 이틀 앞두고 예매율 86%
상위권 한국영화 비해 압도적

3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한국영화가 장악하면서 충무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해 새로운 흥행세에 대한 기대도 키운다. 하지만 아직 여유를 갖기에는 이르다는 시선이 나온다. 6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히어로물 '캡틴 마블'의 힘이 거세기 때문이다.

'캡틴 마블'은 개봉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3시30분 현재 86%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2.3%를 비롯해 '사바하' '증인' '극한직업' 등 박스오피스 상위권 한국영화가 최고 2%대인 것에 비하면 더욱 압도적이다. 이는 단일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마블 솔로 무비의 국내 최고 예매율이기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캡틴 마블'은 개봉과 동시에 스크린은 물론 관객 '싹쓸이'에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마블스튜디오가 확보해온 국내 팬덤에 더해 새로운 스토리에 대한 관객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캡틴 마블'은 마블의 히어로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1990년대로 날아가 슈퍼히어로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야기. 특히 첫 여성 히어로를 내세워 또 다른 호기심을 자아낸다. 수입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국내 관객의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인다.

이에 맞서는 한국영화는 20일 '우상'과 '돈'을 비롯해 21일 '악질경찰', 이후 4월 '생일' 등 기대작을 연이어 내놓는다. 따라서 '캡틴 마블'은 최소 2주 가량 극장가에 흥행 '광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영화가 '캡틴 마블'이 키울 흥행시장에서 함께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그에 무릎을 꿇을지, 올해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늠하게 할 첫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패션 퀸 정려원

배우 정려원이 '화보의 정석'을 선보였다. 패션쇼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그는 검은색 수트에 미니스커트를 입어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카리스마와 섹시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매력에 팬들도 시선을 떼지 못한다. 팬들은 "패션 천재" "공주님 같다" 등의 응원을 보냈다.

#스포츠동아 #정려원 #파리일상 #화보인생